

목격자 식별 절차에서 한국인과 영국인 간의 오류 선호 차이: 예방 초점 성향의 조절 효과*

김 단 희¹⁾ 박 희 진²⁾ 윤 상 연[†]

목격자 식별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인을 특정하는 핵심적 단계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정의 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제도적 배경은 목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각 국가의 사회·제도적 맥락에 따라 구성원이 어떤 오류를 더 선호하거나 회피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제도 수립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국인과 영국인의 목격자 식별 절차에서 나타나는 행동 경향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사회·제도적 관점에서 범인을 식별할 확률은 높으나 무고한 시민을 오인할 가능성 또한 높은 1종 오류와, 범인을 식별할 확률은 낮지만 무고한 시민을 오인할 가능성은 낮은 2종 오류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인 300명, 영국인 300명으로 구성된 총 6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 업체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실제 범인의 포함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시제시법(정확률은 높지만 오류 가능성도 높은 방식)과 순차제시법(정확률은 낮지만 오류 가능성도 낮은 방식) 중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조절 초점 척도(5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국적의 주효과와 예방 초점 성향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국인은 2종 오류를, 영국인은 1종 오류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예방 초점 성향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는 목격자 식별 절차에서 사회·제도적 요인이 위험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인은 무고한 시민이 잘못 지목되는 상황을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여 신중한 판단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2종 오류의 선호로 이어졌다. 반면, 영국인은 범인을 놓치는 상황을 정의 실현의 실패로 간주하며 더 적극적인 검거 태도를 취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1종 오류의 선호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사회·제도적 차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각국의 형사사법 제도 설계와 정책 결정에 있어 사회·제도적 배경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목격자 식별, 오류 선호, 사회·제도적 요인, 예방 초점, 향상 초점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A2A03037938).

1)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2)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윤상연,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501

Tel: 055-772-1262, E-mail: yoonsangyeon@gnu.ac.kr



Copyright ©2025,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목격자의 증언은 범죄 수사과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기술적 증거로 범죄 현장을 명확히 판독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민조, 박주용, 2012). 이러한 상황에서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 단서가 되며, 따라서 그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이무선, 2014).

기존의 목격자 식별 절차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기억의 정보 처리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각 단계에서 기억을 왜곡시킬 수 있는 심리적 및 인지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Douglass & Smalarz, 2019; Marr, Otgaar, Sauerland, Quaedflieg, & Hope, 2021). 예를 들어, 목격자의 주의 집중, 정보 부호화 및 인출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지적 편향과 오류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Burtt, 1948; Glomb et al., 2024; Laughery, Alexander, & Lane, 1971; Kovera & Evelo, 2021).

그러나 목격자의 기억은 사건 당시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 영향을 받는다(김동률, 이훈, 2015; Anakwah, Horselenberg, Hope, Amankwah-Poku, & Van Koppen, 2020; Hutton, 2013). 특히 사회·제도적 배경은 개인의 상황 인식과 해석 방식(Hope et al., 2022; Kovera & Evelo, 2021), 나아가 시각 정보에 대한 주의 집중 수준(Kastanakis & Voyer, 2014)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사회·문화적 맥락은 위협 인식, 정보 처리 방식, 판단 기준 등에 작용하여(정기성, 2004; 주미정, 이재식,

2012) 동일한 상황에서도 각 국가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행동 양식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행 연구(Cutler & Penrod, 1995)에 따르면, 경찰 신뢰도가 낮은 사회의 목격자들은 자신의 진술이 범인 검거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낮거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보의 제공을 꺼리거나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회의 목격자들은 수사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의 기억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다른 선행 연구(Kassin & Gudjonsson, 2004)에서는 자백을 중심으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권위가 피의자나 목격자의 진술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검토하였으며, 특히 취약한 개인일수록 권위 있는 인물의 유도 질문에 의해 거짓 기억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사회·제도적 배경에 따른 인지적 차이는 목격자가 범인을 식별하는 방식에서도 간극을 초래할 수 있다(Anakwah et al., 2020).

한국과 영국은 목격자 식별 절차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식에서 서로 다른 제도적·행정적·운영상의 차이를 지닌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두 국가 모두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형사사법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사 절차의 구조와 목격자 진술을 다루는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의 목격자 식별 절차는 2004년 대법원 판례와 대검찰청(2004), 경찰청(2005)의 실무 지침을 기반으로 '라이브 라인업'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적으로 '사진제시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립되어 있다(김학경, 2019). 그러나 현실의 수사 현장에서는 절차의 번거로움과 인력·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 실물 라인업이 거의 사

용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진 제시 후 용의자를 직접 대면시켜 특정하게 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조성학, 이중섭, 장민환, 이정원, 2022). 이러한 현실은 유사 인물(filler) 확보의 어려움과 라인업 절차에 따른 행정적 부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들어서야 실물 라인업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다(이정원, 2021). 반면, 영국은 더욱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목격자 식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라이브 라인업보다 공정성과 증거 수집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 ‘비디오 라인업’ 절차를 도입하였으며(Price et al., 2018), 예컨대 객관적인 범인 식별을 위해 ‘미스터리 맨(Mystery Man)’ 기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범인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기 위해 가상의 인물 등을 삽입하는 기법이다(Pike, Havard, Harrison, & Ness, 2021). 또한 아동 목격자와 같은 취약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 ‘특별조치(special measures)’ 조항을 통해 목격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법정에서 증언하는 동안 목격자를 가려주는 화면이나 증언 사전 녹음 등을 제공하고 있다(Metson & Willmott, 2024).

이에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사회·제도적 배경을 지닌 한국과 영국 간에 목격자의 판단과 행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목격자 식별 과정에서 오류 선호가 한국과 영국이라는 사회·제도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인식되고 수용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지향 가치와 제도적 신뢰 수준과 같은 요인들이 목격자 판단의 구조와 방향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인과 영국인이 범인을 식별할 확률

은 높지만, 무고한 시민을 오인할 가능성도 높은 1종 오류(Type I error), 그리고 범인을 식별할 확률은 낮지만, 무고한 시민을 오인할 가능성은 낮은 2종 오류(Type II error)의 판단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판단 경향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오류 판단이 조절 초점이라는 심리적 요인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절 초점 이론은 개인이 목표를 추구할 때 긍정적인 결과의 획득(향상 초점) 또는 부정적인 결과의 회피(예방 초점)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는지를 설명하는 동기 이론이다(Higgins, 1997). 이때 조절 초점은 개인의 고유한 성향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지만,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이나 사건의 특성, 맥락적 조건에 의해 상황적으로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제시된 바 있다(김은예, 박용한, 2021; Rose, Hur, & Pennington, 1999).

특히 범죄 사건과 같은 비밀상적 상황은 높은 심리적 긴장과 도덕적 책임감을 수반하며, 이로 인해 예방 초점이 더욱 활성화되기 쉬운 맥락적 조건을 제공한다(Demir, 2018; Fairclough, 2023). 이러한 특수한 상황은 일반적인 이득 추구보다 손실 회피와 안정성 유지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며, 개인의 향상 초점 성향과 예방 초점 성향의 작용 방식 또한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국가별로 상이한 사회적 지향 가치와 제도적 신뢰 수준은 어떤 오류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판단 차이를 유도할 수 있으며(Den Hartog & De Hoogh, 2024), 이때 조절 초점은 단순한 개인 차를 넘어 사건의 특수성과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조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Cheon et al., 2021). 따라서 조절 초점이 이러한 판단에 어떻게 개

입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회·제도적 배경과 심리적 기제가 목격자 판단에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격자 식별 절차에 대한 1종 오류와 2종 오류

동시제시법(simultaneous lineup)은 목격자에게 실제 범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와 들러리를 포함한 라인업을 한 번에 제시하여 식별하게 하는 절차이다(Devlin, 1976). 즉, 한 화면에 라인업 구성원 전체의 얼굴을 동시에 보여준 뒤, 목격자는 그 중 기억 속 인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포함되어 있다면 누구인지 판단하게 된다(Stebly, Dysart, Fulero, & Lindsay, 2001). 일반적으로 5~8명의 라인업 구성원이 포함되며, 이 방식에서는 목격자가 구성원들을 상호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인물을 선택하는 상대적 판단(relative judgment) 전략을 취하게 된다(김지영, 김기범, 김시업, 2007; 김윤혜, 이정원, 2023).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 판단은 라인업에 실제 범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외형적으로 가장 유사한 들러리를 잘못 지목할 위험이 있어, 무고한 개인이 피의자로 지목되는 1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Lindsay & Wells, 1985).

반면, 순차제시법(sequential lineup)은 라인업 구성원의 얼굴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각 인물에 대해 '예/아니오(yes/no)' 형식의 식별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절차이다(Gronlund, 2005). 이러한 일대일(one-at-a-time) 방식은 라인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유사한 인물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억제하며(김지영 등, 2007), 목격자가 각 인물을 독립적으로 기억 속 범인과

비교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분명한 유사성이 느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목을 하지 않게 되므로, 실제 범인을 놓치는 2종 오류의 가능성이 커진다(우소연, 조은경, 2012).

이처럼 목격자 식별 방식은 각기 다른 판단 전략을 유도하며, 서로 다른 유형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Kaesler, Dunn, Ransom, & Semmler, 2020). 즉, 절차의 구조는 목격자가 '누가 가장 비슷한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범인이 맞는가'를 독립적으로 평가할지에 영향을 주며(Wixted, Mickes, Dunn, Clark, & Wells, 2016), 이는 궁극적으로 어떤 오류를 더 감수하게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짓는다. 이때 목격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적 압박, 판단에 따르는 도덕적 책임감, 그리고 사회적으로 학습된 오류에 대한 감수성과 같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소를 바탕으로 판단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Lee & Saraiva, 2025). 예를 들어 범죄 해결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가진 국가에서는 범인을 놓치는 것(2종 오류)보다 무고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1종 오류)을 더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개인의 권리 보호가 우선되는 사회적 가치를 가진 국가에서는 그와 반대의 판단 기준이 작용할 수 있다(Xiong et al., 2017). 관련 선행 연구에 따르면 무고한 사람을 지목할 수 있는 1종 오류를 수용하는 국가일수록 실제 수감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Yehonatan, 2019). 이는 사회적 가치와 제도적 환경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오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오류 선호는 단순한 수사 효율성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회가 정의와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해하는지를 반영하는 판단이기도 하다(Kovera et al., 2021). 따라

서 식별 절차가 유도하는 판단 전략은 사회적 지향 가치 및 제도적 신뢰 수준과 결합하여 목격자의 실제 판단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Larson, 2023).

국적에 따른 목격자 증언에 대한 인식 차이

한국과 영국은 목격자 증언에 대한 인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목격자 증언 중요성'과 '목격자 증언 활용성'이 목격자 인식의 핵심 차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국가 간 인식 차이를 세 가지 차원, 즉 첫째 사회적 환경, 둘째 절차적 정당성 인식, 셋째 사회적 지향 가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환경 차원에서 두 국가는 범죄 발생률과 이에 따른 시민의 범죄 인식 및 대응 방식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영국의 경우, 높은 범죄 발생률과 이에 따른 범죄 불안은 시민들에게 '범인 검거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5)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영국의 연간 범죄 발생 건수는 약 960만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하였으나, 강간이나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의 검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Fleetwood & Lea, 2022). 이러한 범죄 증가와 낮은 검거율은 범죄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을 고조시키며, 2022년 조사에서는 영국 성인 10명 중 4명이 범죄 우려로 인해 CCTV, 강화된 잠금장치, 경보 시스템 등 보안 장치를 자택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Liberal Democrats, 2023.5.23).

반면, 한국의 경우, 낮은 범죄 발생률과 상대적으로 높은 검거율은 시민들로 하여금 '무

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범죄 발생률은 영국이 139.4건인 데 비해 한국은 29.4건으로 현저히 낮았다(통계청, 2024;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4). 또한, 한국의 전체 범죄 검거율은 78.9%에 달하며, 강력범죄의 경우 92.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검찰청, 2023). 이러한 수치는 범죄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정 부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2023)의 조사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30.3%에서 2023년 18.1%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렇듯 영국은 한국보다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범죄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다(Selner-O'Hagan, Kindlon, Buka, Raudenbush, & Earls, 1998). 이러한 환경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적 감정을 자극하여 시민들이 범죄 해결 과정에서의 역할을 실질적 책임으로 인식하게 만든다(Gerfen, et al. 2018; Haidt, 2003; Zeelenberg, Nelissen, Breugelmans, & Pieters, 2008). 실제로 영국에서는 오랫동안 목격자 증언을 중요한 수사 자료로 인식해 왔으며, 목격자 증언이 사건 해결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Davies & Griffiths, 2008). 반면 한국은 범죄 수사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인 협력, 특히 목격자 증언 제공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조병인, 1999). 이러한 영국과 한국의 상이한 사회적 환경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목격자 증언의 필요성과 수사 활용도를 인식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 인식에서도 두 국가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절차적 공정성이란 개인이 법적·행정적 절차를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해당 절차와 이를 실행하는 권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사회심리학적 개념이다(Lind & Tyler, 1988). 이는 권위에 대한 수용성, 사회적 협조, 준법정신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형사사법 체계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제도적 맥락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절차적 공정성은 경찰이 시민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대할 때 형성되며(Sunshine & Tyler, 2003), 경찰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함께 제고되는 특징을 보인다(전용재, 이창배, 2021). 2024년 OECD 경찰 신뢰 조사에 따르면, 경찰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영국인은 56%였으나, 한국인은 42%로 영국보다 적었다(OECD, 2024).

이러한 차이는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은 국가독점적 수사체제로 인해 민간의 관여나 참여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서보학, 2002), 영국은 수사가 경찰의 책임과 권한 하에 이루어지지만, 모든 시민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 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시민적 임무(civic duty)'로 간주한다(표창원, 2007). 이렇듯 제도적·절차적 차이는 목격자 증언을 포함한 수사 협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가치 차원에서 한국과 영국은 '수용 가능한 오류'에 대한 판단과 목격자 증언 인식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과 영국인은 경찰과의 협력 동기에서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Choi & Lee, 2021). 한국인은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범죄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협조를 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영국인은 제

도에 대한 신뢰나 실질적 보상 등 외재적 요인을 통해 협력이 유도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 시민들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수용 가능한 오류'를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는지를 설명하는 단서가 된다.

예를 들어, 영국은 개인의 안전과 실질적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며(Lomas et al., 2022), 이에 따라 범죄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판단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즉, 영국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고(Robinson, Schofield, Sutcliffe-Braithwaite, & Thomlinson, 2017) 범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손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실제 범인을 놓치는 2중 오류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며, 설령 무고한 인물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잠재적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 즉 1중 오류를 감수하는 선택이 더 용인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한국은 지역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조화를 중시하며, 개인보다는 공동체 중심의 사고방식이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양정은, 2019). 특히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의 공권력 남용 사례와 제도적 불신 경험이 누적된 사회적 맥락에서(Na, Lee, & Kang, 2023), 무고한 시민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한 민감성이 높다. 또한, 한국에서는 구성원들이 가족이나 집단에 대한 응집력이 강해,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Hofstede, 1991; Hofstede, Hofstede, & Minkov, 2010).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는 실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더라도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며, 1중 오류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오류 판단에도 반영

되어, 한국인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공동체 기반의 도덕적 책임 인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판단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조절 초점과 위험 감수 행동

조절 초점 이론(Regulatory Focus Theory; Higgins, 1997, 2000)에 따르면, 개인은 목표를 추구할 때 두 가지 상이한 동기 체계, 즉 항상 초점 성향과 예방 초점 성향을 기반으로 자기 조절 전략을 사용한다. 항상 초점 성향이 높은 개인은 긍정적 결과의 획득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상적인 자기의 달성을 위해 접근 전략을 사용한다(Idson, Liberman, & Higgins, 2000). 이들은 긍정적 결과를 달성했을 때 환희 등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낙담이나 실망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정은경, 김봄메, 손영우, 2011). 반면, 예방 초점 성향이 높은 개인은 부정적 결과의 회피 여부에 더 민감하며, 당위적 자기를 지향하고 회피 전략을 통해 손실이나 실패를 방지하고자 한다. 예방 초점 상태에서는 부정적 결과를 회피했을 때 안도감을 느끼며, 실패했을 경우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조절 초점과 위험 감수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변서영, 김교현, 2018; 이준복, 윤상연, 허태균, 2014; 이현규, 2015; Crowe & Higgins, 1997; Hamstra, Bolderdijk, & Veldstra, 2011)에 따르면, 항상 초점 성향은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잠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어 위험 감수 행동을 촉진하는 반면, 예방 초점 성향은 손실 회피와 안정성 추구의 동기에서 출발하여 위험 회피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호탐지 이론(Signal Detection Theory)과 조절 초점의 연관성을 탐구한 연구들이 주목할 만하다. 신호탐지 실험 패러다임은 개인의 위험 감수 성향을 평가하는 대표적 방법 중 하나인데, Bryant와 Dunford(2008)의 연구에서는 항상 초점 성향이 높은 개인은 오경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보를 울리려는 경향이 강하며, 예방 초점 성향이 높은 개인은 적기의 출현을 놓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보를 울리지 않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처럼 항상 초점 성향은 위험을 감수하여 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예방 초점 성향은 위험을 회피하여 안전한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정은경 등, 2011; Crowe & Higgins, 1997).

사람들이 무엇을 '위험'이나 '이득'으로 인식하는지는 국가에 따른 사회·제도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Marris, Langford, & O'Riordan, 1998; Weber & Hsee, 1998). 다시 말해, 예방 초점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사회적 비난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더 큰 위험으로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득에 대한 침해를 더 중요한 위험 요소로 인식할 수 있다(Gorodnichenko & Roland, 2012; Yang, 2015). 마찬가지로, 항상 초점의 경우에도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집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이득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반면,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적 성취나 판단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이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Hofstede, 1991; Kagitçibasi, 1997; Muramoto, Yamaguchi, & Kim, 2009). 즉, 같은 조절 초점이라도 사회·제도적 배경에 따라 '무엇을 위험으로 피하고, 무엇을 이득으로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목격자 진술과 같은 실제 상황에서 국적 간 판단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동일하게 예방 초점 성향이 높더라도 국가별로 인식하는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오류 선호가 달라지게 될 수 있다.

국적과 조절 초점에 따른 오류 선호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제도적 차이가 긍정적·부정적 결과에 대한 인식 차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 인식 차이가 다시 각기 다른 판단 오류(1종/2종 오류)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조절 초점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조절 초점은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향적 특성(trait-level orientation)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일시적인 정보처리 맥락이나 자극 상황에 따라 유도될 수도 있다(Rose, Hur, & Pennington, 1999). 즉 상황과 사건 자체는 다양한 종류의 긍정적·부정적 가치 경험을 유발하는 여러 심리적 조건들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은예, 박용한, 2021). Higgins(1997, 1998)는 조절 초점 이론에 '가치의 상황적 효과를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이 서로 다른 동기적 시스템 하에서 자기 조절을 수행할 때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를 경험하는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더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향상 초점 상황은 개인이 바람직하거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현재 상태를 개선하려는 목표를 지니게 하는 반면, 예방 초점 상황은 개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목표를 지니게 한다(김가영, 전홍식, 2015). 이러한 조절 초점의 상황적 효과는 개

인의 조절 초점 성향과 상호작용하여, 정보를 해석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 혹은 행동 선택의 경향성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Crowe와 Higgins(1997)는 개인의 조절 초점 성향과 상황적 조건이 잘 부합할 때, 즉 조절 초점이 서로 일치할 때, 개인은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현상을 '조절 부합(regulatory fit)'이라고 명명하였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조절 부합이 이루어졌을 때 각 조절 초점에 일치하는 사고 방식과 행동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Diefenbach, Schnellbacher, & Heidenreich, 2020). 이는 조절 초점 상황과 개인의 성향 간의 부합이 동기 유발과 정보 처리 방식을 강화시키며, 결과적으로 판단이나 선택의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범죄 사건의 목격 상황은 일상적 의사결정 맥락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고유한 특수성을 가진다. 목격자는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술이 향후 법적 판단과 사회적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심리적 부담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Demir, 2018; Fairclough, 2023). 특히, 목격자의 진술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오인되거나, 반대로 범죄자가 검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결과는 모두 목격자에게 심리적·도덕적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Dragović, 2019), 이는 전형적인 예방 초점 상황의 조건과 부합한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직접적으로 인지되는 상황에서는 위험 회피적 동기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경각심이나 방역 수칙 준수와 같은 안전 행동이 촉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Rodrigues, Lopes, & Balzarini, 2022). 이

는 위협 상황이 개인의 인식 체계를 조절 초점의 '예방 초점'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범죄 사건의 목격 상황에 대한 예방 초점 성향의 조절 효과는 강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예방 초점은 본질적으로 부정적 결과의 회피와 안정성 유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Higgins, 1997, 2000), 이러한 특성은 범죄 목격 상황의 불확실성 손실 가능성, 책임 회피 욕구와 맞물려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혜인, 김성봉, 2019: 남성주, 황성욱, 2014). 그리고 어떤 위협 지각이 더 활성화될지는 그 국가의 형사사법적 현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율이 높은 국가는 '범죄자를 놓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피해나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보다 중대한 손실로 인식한다(Xiong et al, 2017). 이에 따라 범죄율이 높은 영국에서는 범인을 검거하려는 선택이 선호되며, 이는 범죄에 대한 높은 우려, 제도 신뢰, 개인 안전 중시 성향과도 연관될 수 있다(Liberal Democrats, 2023.5.23.;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4). 반면 한국은 무고한 시민이 범인으로 오인되는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 훼손과 제도 불신을 더 심각한 손실로 인식하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무죄추정 원칙을 넓게 적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검거할 수 있는 오류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문재완, 2020).

범죄 사건의 목격 상황에 대한 항상 초점 성향의 조절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항상 초점은 이득 추구나 성과 달성과 같은 긍정적 결과의 획득을 지향하지만, 범죄 목격 상황은 그 자체로 명확한 이득이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며, 오히려 오판의 위협이나 법적·도덕적 책임의 부담이

강조되는 상황이다(고혜인, 김성봉, 2019: 남성주, 황성욱, 2014). 더욱이 개인은 사건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이득보다는 위험 회피 동기가 우세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이현규, 2015).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는 항상 초점의 동기 유발 효과가 약화되며, 실질적인 조절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

요약하자면, 범죄 사건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 자체가 조절 초점 성향의 작용 방식에 명확한 차이를 유도하며, 특히 예방 초점 성향은 이러한 맥락과 상호작용하여 판단 방향을 강화하는 심리적 조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항상 초점 성향은 동기 유발력이 약화될 수 있다.

가설 1. 국적에 따른 오류 선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국적에 따른 오류 선호 차이에 있어 예방 초점 성향은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은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2025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 동안 온라인 실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한국인 300명, 영국인 300명 총 600명의 데이터를 얻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과 영국 모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동일했다(각 조건마다 150명(25%)). 연령대 비율도 한국과 영국 모두 20대부터 50대까지 각 조건마다 75명(12.5%)으

표 1. 오류 선호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변인 차이 비교(N=600)

종속변수	집단	표본 수	오류 선호(%)		$\chi^2(df)$	p
			1종 오류	2종 오류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5	78(53.8)	67(46.2)	5.075(3)	.166
	전문대 졸업	92	44(47.8)	48(52.2)		
	4년제 대학 졸업	221	95(43.0)	126(57.0)		
	대학원 졸업 이상	142	74(52.1)	68(47.9)		
형사사법기관종사	예	34	19(55.9)	15(44.1)	.786(1)	.375
	아니오	566	272(48.1)	294(51.9)		

로 국적 간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국적별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162명, 54.0%), 고등학교 졸업 이하(60명, 20.0%), 전문대 졸업(49명, 16.3%), 대학원 졸업 이상(29명, 9.7%) 순으로 많았다. 영국의 경우, 대학원 졸업 이상(113명, 37.7%), 고등학교 졸업 이하(85명, 28.3%), 4년제 대학 졸업(59명, 19.7%), 전문대 졸업(43명, 14.3%) 순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국적별 참가자가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없다’가 98.7%(296명), ‘있다’가 1.3%(4명)였으며, 영국에서도 ‘없다’가 90.0%(270명), ‘있다’가 10.0%(30명)로 조사되었다. 즉 한국과 영국 모두 대다수의 응답자가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학력 수준과 형사사법기관 종사 여부 측면에서 집단 간 비율이 균형적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변인들이 오류 선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력 및 형사사법기관 종사 여부와 오류 선호 간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오류 선호와 학력, 형사사법기관 종사 여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표 1 참조).

측정도구

목격자 증언에 대한 인식

목격자 증언 중요성 목격자 증언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해 4점 Likert 척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4: 매우 중요하다)를 사용하였다. 본 문항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다음 보기(목격자 증언)에 있는 증거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목격자 증언 활용성

목격자 증언 활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4점 Likert 척도(1: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 4: 많이 활용된다)를 사용하였다. 본 문항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다음 보기(목격자 증언)에 있는 증거가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상 초점 성향과 예방 초점 성향

향상 초점 성향과 예방 초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Higgins 등(2001)의 조절 초점 척도(RFQ)를 사용하였다. 조절 초점 척도 질문지는 향상 초점 성향 질문 문항 5개와 예방 초점 성향 질

문 문항 6개가 포함된 총 11문항의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Higgins(2002)는 항상 초점 성향과 예방 초점 성향이 하나의 차원의 양극단에 위치하기보다는 독립적인 두 개의 차원이라고 보았다. 두 시스템은 한 사람 내에서 독립적으로 공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상 초점 성향과 예방 초점 성향을 독립적인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오류 선호 수용 가능한 오류를 측정하기 위해 가상의 범죄 시나리오를 읽고 체포한 용의자가 해당 사건의 실제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의 장단점을 가진 라인업 중 어떠한 라인업 절차를 선호하는지 응답하였다. 1번은 동시제시법으로 범인을 검거할 확률이 높은 반면,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할 오류율이 높은 1종 오류를 의미한다. 2번은 순차제시법으로 범인을 검거할 확률이 낮은 반면,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할 오류율이 낮은 2종 오류를 의미한다.

시나리오와 오류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아래의 표 참조).

연구절차

이 연구는 경상국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GIRB-A25-NY-0005). 이 연구의 목표는 예방 초점의 조절 효과에 따른 국적과 오류 선호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목격자 증언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목격자 증언 중요도(4점 Likert 척도)와 목격자 증언 활용도(4점 Likert 척도) 두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오류 선호를 측정하기 위해 모든 응답자는 가상의 범죄 시나리오를 읽고 체포한 용의자가 해당 사건의 실제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의 장단점을 가진 라인업 중 어떤 라인업 절차를 선호하는지 응답하였다.

분석방법

이 연구는 SPSS Statistic 27.0을 사용하여 국적에 따른 목격자 증언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카이제곱 검

귀하는 두 가지 라인업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을 더 선호하시는지 선택해 주세요.
 * 경찰은 한 용의자를 이웃에 사는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인물이 해당 사건의 실제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목격자를 통해 라인업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동시제시 방법	② 순차제시 방법
용의자 여러 명이 동시에 제시하고 이들 중 범인을 고르는 방법	용의자를 한 번에 한 명씩 제시하여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는 방법
범인을 지목하는 정확률이 높은 반면, 범인을 잘못 지목하는 오류율도 높음	정확률은 동시제시 방법에 비해 떨어지나 상대적으로 오류율이 낮음

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적 간 수용 가능한 오류 판단에 대한 차이에 있어 항상·예방 초점 성향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¹⁾. 이 연구에서는 국적 간 오류 선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오류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격자 증언에 대한 인식(목격자 증언 중요성, 목격자 증언 활용성)은 통제하고자 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변수 간 발생 가능한 다중공선성을 고려해 평균 중심화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요 변수들의 분산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최대값이 1.3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최숙희, 2009).

결 과

국적 간 목격자 증언에 대한 인식 차이

본 연구에서는 국적 간에 목격자 증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목격자 증언 중요성과 목격자 증언 활용성에 대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적에 따라 목격자 증언 중요성과 목격자 증언 활용성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한국인 응답자들보다 영국인 응답자들이 목격자 증언 중요성과 활용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이러한 결과는 범죄 발생률이 한국보다 높은 영국에서 사람들이 범죄를 목격할 가능성이 더 크며, 그로 인해 목격자 증언이 실제로

활용될 가능성도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목격자 증언의 중요성이 더 크게 인식되고, 이를 더 중요한 증거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국적과 오류 선호의 관계에서 항상 초점 성향과 예방 초점 성향의 조절 효과

오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국적에 따른 오류 선호의 차이를 기술통계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3은 오류 선호 유형(1종 오류 vs. 2종 오류)에 따른 국적별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한국인은 2종 오류(62.3%)를, 영국인은 1종 오류(59.3%)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카이제곱검정 결과, 두 집단 간 오류 선호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28.19, p<.001$), 이는 국적에 따라 오류 유형에 대한 선호가 상이함을 시사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단계적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Model 1에는 국적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목격자 증언에 대한 인식(중요성, 활용성)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이어서 Model 2에는 주요 독립변인, Model 3에는 조절변인, Model 4에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모델 적합도를 살펴보면, $-2LL$ 값이 Model 1의 823.484에서 Model 4의 787.283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변인의 추가에 따라 모델의 설명력이 향상됨을 보여준다. Cox와 Snell R^2 는 Model 1에서 .013, Model 4에서 .071로,

1) 로지스틱 조절 효과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김원표(2017)의 고급 회귀분석을 참고하였다.

표 2. 국적에 따른 목격자 증언 중요성 및 활용성 인식 차이 비교(N=600)

종속변인	집단	표본 수	M	SD	t(df)	p	d
목격자 증언 중요성	한국	300	3.36	0.58	-4.86(598)***	.000	.605
	영국	300	3.60	0.63			
목격자 증언 활용성	한국	300	3.32	0.63	-2.57(591.636)*	.010	.666
	영국	300	3.46	0.70			

* $p < .05$, *** $p < .001$

표 3. 오류 선호에 대한 국적의 기술통계(N=600)

종속변인	집단	표본 수	국적(%)		$\chi^2(I)$	p
			한국	영국		
오류 선호	1종 오류(동시제시)	291	113(37.7)	178(59.3)	28.19***	.000
	2종 오류(순차제시)	309	187(62.3)	122(40.7)		

*** $p < .001$

Nagelkerke R²는 각각 .017에서 .094로 증가하였다. 이는 최종 Model 4가 오류 선호의 약 9.4%를 설명함을 의미한다. 각 모델의 적합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Model 1($\chi^2(2)=7.75, p < .05$), Model 2($\chi^2(3)=25.95, p < .001$), Model 3($\chi^2(5)=39.45, p < .001$), Model 4($\chi^2(7)=43.95, p < .001$) 모두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Model 1에서는 목격자 증언에 대한 인식(중요성, 활용성)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오류 선호를 예측하였다. 이때 목격자 증언 활용성은 2종 오류 선호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beta=.18, p=.059$), 목격자 증언 중요성은 2종 오류 선호와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beta=-.25, p < .01$). 이는 목격자 증언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2종 오류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Model 2에서는 국적이 주요 독립변인으로 포함되었으

며, 분석 결과 국적의 주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86, p < .001$). 이는 영국인이 한국인에 비해 2종 오류를 선호할 가능성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즉 영국인은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1종 오류를 상대적으로 더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적 변인의 포함으로 모델 설명력(Cox와 Snell R², Nagelkerke R²)과 적합도(-2LL)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국적이 오류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Model 3에서는 조절 초점 성향(향상, 예방)이 조절변인으로 포함되었으나, 두 성향 모두 오류 선호에 대한 유의미한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 모델의 설명력은 소폭 증가하였다.

Model 4에서 국적과 향상 초점 성향, 국적과 예방 초점 성향 각각의 상호작용 항이 포함되었다. 상호작용항 분석 결과, 국적과 향상

표 4. 2종 오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N=600)

예인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S.E	Wald	Exp(B)	β	S.E	Wald	Exp(B)	β	S.E	Wald	Exp(B)
통계변인												
목격자 증인 중요성	-.25	.09	6.95	.78**	-.17	.10	3.32	.84	-.16	.10	2.65	.85
목격자 증인 활용성	.18	.09	3.55	1.19	.19	.10	4.13	1.22*	.21	.10	4.66	1.23*
독립변인												
국적(1)					-.86	.17	25.39	.42***	-1.01	.19	28.44	.36***
조절변인												
향상 초점 성향					-.16	.09	2.96	.85	-.21	.13	2.40	.81
예방 초점 성향					-.10	.10	1.11	.90	.10	.14	.50	1.10
상호작용												
국적(1) × 향상 초점 성향									.05	.18	.08	1.05
국적(1) × 예방 초점 성향									-.41	.20	4.33	.66*
상수항	.06	.08	.55	1.06	.49	.12	16.76	1.64***	.57	.13	19.78	1.77***
-2LL			823.484				797.530				791.784	
Cox와 Snell R ²			.013				.055				.064	
Nagelkerke R ²			.017				.073				.085	
X ²			7.75(df=2)*				25.95(df=3)***				39.45(df=5)***	
												43.95(df=7)***

주. 국적은 범주형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분석에서는 더미변수화하여 0은 한국인, 1은 영국인으로 코딩하였다. 이때 참조 범주는 한국인으로 설정되어, 영국인의 효과는 한국인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차이를 나타낸다.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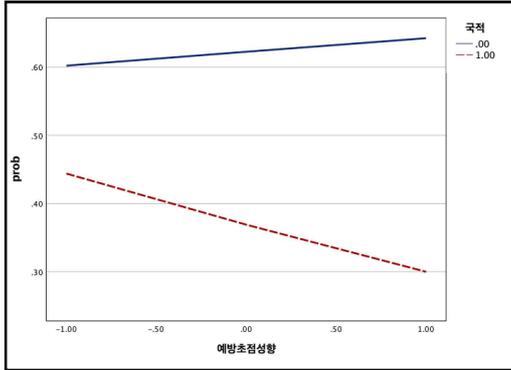


그림 1. 국적에 따른 오류 선호에 대한 예방 초점 성향의 조절 효과

주. prob는 2종 오류 선택 확률, 국적에서 0은 한국인, 1은 영국인을 의미한다.

초점 성향 간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beta=.05, p=.775$), 국적과 예방 초점 성향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beta=-.41, p<.05$). 이는 예방 초점 성향에 따라 국적에 따른 오류 선호가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예방 초점 성향이 높아질수록 영국인은 1종 오류를 선호하는 경향이, 한국인은 2종 오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예방 초점 성향에 따른 한국인과 영국인의 오류 선호 확률을 비교한 로지스틱 회귀 조절 효과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그림 1).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인과 영국인 간 목격자 식별 절차에서의 오류 선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국적에 따른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오류 인식

및 위험 수용 경향의 차이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조절 초점 이론에 기반하여, 예방 초점 성향이 국가별 수용 가능한 오류 선호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국적 간 오류 선호 차이를 한층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적에 따라 목격자 증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실제로 한국인보다 영국인이 목격자 증언의 중요성과 활용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영국 사회가 한국보다 범죄 노출 가능성이 크고(통계청, 2024;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4; Selner-O'Hagan et al., 1998), 목격자 증언이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Davies & Griffiths, 2008). 이러한 사회·제도적 맥락 속에서 영국인들은 목격자의 진술을 더 핵심적인 증거로 간주하며, 그 중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모두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목격자 증언에 대한 인식은 판단 전략에 상이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언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1종 오류를, 활용 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2종 오류를 선호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중요성 인식은 다른 변인들이 포함된 전체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중요성 인식이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치긴 하나, 예방 초점이나 국적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에 비해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반면, 활용성 인식은 다른 변인들이 포함된 전체 모형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활용성 인식은 판단의 신중성을 높이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증언이 실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책임성과 정확성에 대한 부담이 커져 보수적

판단을 유도(2종 오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인이 한국인보다 목격자 증언의 중요성과 활용성을 더 높게 인식하며, 동시에 1종 오류를 선호하는 반면, 한국인은 2종 오류를 선호한다는 결과는, 목격자 증언의 활용성 인식이 높을수록 2종 오류를 선호한다는 결과와 다소 모순되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집단 간 평균 차이와 개인 수준의 판단 경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Monaco, 2020). 따라서 오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해석할 때에는 국적과 같은 집단적 특성과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판단 과정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적에 따른 오류 선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국인은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1종 오류보다 범인을 놓치는 2종 오류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영국인은 범인을 놓치는 2종 오류보다 무고한 사람을 지목할 가능성이 있는 1종 오류를 더 선호하였다. 이는 동일한 목격자 증언 상황에서도 사회·제도적 배경에 따라 인식하는 ‘더 큰 이득 혹은 위협’의 범주가 다름을 보여주며, 이러한 배경 차이에 따른 오류 인식과 수용의 차이를 보고한 기존 연구(Chen-Xia et al., 2023)와 일치한다. 또한, 국적에 따른 오류 선호 차이에서 예방 초점 성향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예방 초점 성향이 강할수록 한국인은 1종 오류를 회피하기 위해 2종 오류를 감수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으며, 영국인은 2종 오류를 회피하기 위해 1종 오류를 감수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류 선택이 단순한 ‘선호’라기보다, 사회·제도적 배경에 따라 더 큰 위협으로 인식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 다

른 오류를 ‘감수’하는 전략적 판단임을 시사한다. 특히 영국 사회는 범죄자 검거 실패를 개인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율과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결합되어 범죄 억제 중심의 판단 전략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한국 사회는 무고한 시민의 잘못된 기소를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판단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적과 항상 초점 성향 간의 조절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항상 초점 성향이 국적에 따른 오류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항상 초점 성향이 높더라도 국적에 따라 선호되는 오류 유형을 조절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 사건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추구하려는 동기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범죄 상황에서는 ‘정확한 진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명확한 보상이나 이득은 제한적인 반면(Kontorovich, Eugene, Friedman, & Ezra, 2011), 잘못된 진술로 인한 죄책감, 책임, 비난과 같은 부정적 결과는 더 크게 인식되기 때문에(Srishti Malik, 2023), 항상 초점 성향의 동기 유발 효과가 제한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항상 초점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목격자는 경찰관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사건 해결에 기여하려는 욕구로 인해 증언 의지를 가질 수 있다(신상화, 2024). 향후 연구에서는 국가 간 차이뿐만 아니라 라인업 절차에서 경찰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동기가 항상 초점 성향과 오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범인 지목을 통한 수사 기여, 정의 실현, 협조, 책임 이행 등과 같은 내재적 보상 욕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탐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종합하면, 범죄 사건이라는 특수한 상황 자체가 조절 초점, 특히 예방 초점 상황을 유도하는 맥락적 요인으로 작용하며(Genea, 2020), 예방 초점 성향은 사회·제도적 요인과 결합하여 판단 오류에 대한 선호 방향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심리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반면, 항상 초점 성향은 이와 같은 회피 중심 상황에서는 동기 유발 효과가 약화되어, 실질적인 조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범죄 맥락에서 항상 초점 성향보다 예방 초점 성향이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조절 초점 상황과 개인 성향 간의 정합성이 동기 부여 및 정보 처리 과정을 강화한다는 기존 연구(Diefenbach et al., 2020)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는 목격자 식별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도적 요인을 경험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국적 간 행동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목격자의 기억 정확성이나 인지적 오류에 초점을 맞추며 인지적 맥락에 국한된 설명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Douglass & Smalarz, 2019; Marr, Otgaar, Sauerland, Quaedflieg, & Hope, 2021).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제도적 맥락이 목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배경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서로 다른 사회·제도적 배경

에 따른 오류 선호와 예방 초점 성향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목격자 식별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목격자 판단의 심리적·사회적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목격자의 판단 경향성이 단지 개인의 인지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적 환경 속에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나아가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인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목격자 식별 절차를 해석해 온 데 반해, 본 연구는 이를 사회·제도적 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향후 보다 통합적이고 맥락 중심적인 관점에서 목격자 판단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목격자 식별 행동 경향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목격자 식별 절차 및 관련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1종 오류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무고한 시민의 인권 보호를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목격자의 판단이 수사기관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범인 검거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보다는, 오판으로 인한 책임 회피와 같은 예방 중심의 판단 전략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목격자 식별 절차 설계 시, 범인 검거에 초점을 맞춘 압박적 접근보다는,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고 판단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절차적 장치(예: “식별 거부” 옵션의 명확한 고지, 절차에 대한 중립적 설명, 경찰관의 기대 최소화 등)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목격자가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느끼는 내재적 보상 동기(정의 실현, 협조, 책임 이행

등)를 보다 체계적으로 유도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식별 판단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목격자의 판단이 범죄 유형, 수사 방식,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Albright & Rakoff, 2020; Giné & Py, 2001; Pajón & Walsh, 2017), 사회적 특성과 심리적 기제가 반영된 맞춤형 교육과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는 무고한 시민의 오인을 방지하는 것이 범인 검거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목격자 식별 제도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향후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조절 초점에 기반해 국적에 따른 오류 선호 차이를 설명하였으나, 집단주의-개인주의, 권위주의, 불확실성 회피 등 거시적 문화 요인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국가 간 차이를 문화적 특성의 차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국적 차이를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가 범죄 사건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조절 초점의 효과를 관찰한 데 반해, 의료 판단이나 사회적 오판과 같은 다른 사건 유형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범죄 사건이 특별히 예방 초점을 유도하는지, 혹은 다양한 맥락에서 유사한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목격자 증언 인식에

있어 목격자 증언의 중요성과 활용성을 단일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단일 문항은 응답자의 복합적인 태도와 행동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내적 일관성이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Pierce, Gardner, Dunham, & Cummings, 1993; Wanous, Reichers, & Hudy, 1997).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항을 활용하여 목격자 증언 인식에 대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오류 선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상의 범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두 가지 라인업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조작하였다. 그러나 해당 문항이 실제로 응답자의 '오류 선호 태도'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라인업 절차에 대한 선호'를 측정한 것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참가자들이 라인업 절차의 전문적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답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각 라인업 선택 시 오류 유형에 따른 장단점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참가자들의 응답은 절차적 선호라기보다는 오류 감수 태도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오류 감수 태도와 절차적 선호를 명확히 구분하여 측정하기 위해, 두 개념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 기반의 온라인 실험으로 진행되어, 목격자의 판단에서 나타나는 오류 선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정확성, 신뢰도, 반응 시간, 선택 등과 같은 행동적 지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는 성폭행 후 살해 사

건으로 구성되었으나, 범죄 유형에 따른 심각성의 수준은 실제 상황과의 괴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더 높은 생태학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기반의 시뮬레이션 실험이나 실제 법적 사례 분석 등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국가 및 인구집단(연령, 성별, 법 지식수준 등)을 포함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학력 분포의 불균형 문제도 연구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 참여자의 다수가 4년제 대학 졸업자인 반면, 영국 참여자는 대학원 이상 학력 비율이 높아 인지적 처리나 판단 경향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특히 온라인 기반 설문조사에서 자발적 참여의 특성상, 고학력자가 과대표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Keeter, Dimock, & Christian, 2008).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학력 분포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학력과 오류 선호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아 본 연구 결과의 해석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향후 연구에서는 학력 수준을 통제하거나 균형 있게 구성된 표본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찰청 (2023). 범죄분석통계.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tblId%3DDDT_135N_1A001A%26vw_cd%3DMT_OTITLE%26orgId%3D135%26

고민조, 박주용 (2012). 한국, 미국, 중국, 노르웨이 판사들의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지식과 인식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일반*, 31(3), 713-740.

고혜인, 김성봉 (2019). 조절초점과 득실 정보의 상호작용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과학연구*, 38(2), 5-41.

김가영, 전홍식 (2015). 상황조절초점, 메시지 프레이밍 및 소구방향이 여성청소년과 그 부모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의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학연구*, 26(2), 25-59.

김동률, 이훈 (2015). 형사절차에 있어 목격자 등의 범인식별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4), 9-40.

김은예, 박용한 (2021). 가치 점화와 조절초점 상황이 불안 및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35(3), 393-414.

김윤혜, 이정원 (2023). 라인업 제시 방식과 동인종 편향이 목격자의 식별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4(3), 135-155.

김지영, 김기범, 김시업 (2007). 복수면접(lineup)에서 순차적 제시와 동시적 제시방법의 식별 정확성 비교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59-70.

김원표 (2017). 다시 쓰는 통계분석 고급회귀 분석. 와이즈인컴퍼니.

김학경 (2019). 영국의 비디오 라인업 범인식별진술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경찰학연구*, 19(1), 115-146.

남성주, 황성욱 (2014). 수용자 성향과 메시지 조절초점 그리고 메시지 소구 유형에 따른 사과 효과: 조절초점이론을 중심으로. *PR연구*, 18(3), 185-215.

문재완 (2020). 범죄보도와 무죄추정원칙. *언론*

- 과 법, 19(2), 77-113.
- 변서영, 김교헌 (2018). 접근 및 회피동기 민감성과 조절 프레이밍이 도박성 게임의 추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1), 231-245.
- 서보화 (2002). 수사권의 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헌법학연구*, 8(4), 177-210.
- 신상화 (2024). 목격자 진술의 양과 확신이 범인식별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범죄수사학연구*, 10(1), 31-51.
- 우소연, 조은경 (2012). 목격자의 범인식별 절차에서 식별 전 지시와 순차적 제시방식 유형에 따른 식별 정확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141-155.
- 이무선 (2014). 경찰수사에서 범인 식별에 관한 목격자진술의 신빙성 제고 방안. *경찰학연구*, 14(3), 3-32.
- 이정원 (2021). 국내 범인식별절차의 현황과 시사점. *형사정책*, 33(3), 127-159.
- 이준복, 윤상연, 허태균 (2014). 누가, 왜 불법도박을 할까?: 불법도박 경험 수준에 따른 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2), 155-176.
- 이현규 (2015). 조절초점과 관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위험 감수/회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정은 (2019). 한국적 집단주의(우리성, we-ness)가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5), 1-14.
- 전용재, 이창배. (2021). 경찰접촉과 공정성인식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 영향요인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8(4), 133-151.
- 정기성 (2004). 한국사회의 위험인식에 대한 문화론적 연구. *정치정보연구*, 7(1), 209-232.
- 정은경, 김봄매, 손영우 (2011). 조절초점이 위험감수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이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209-221.
- 조병인 (1999). *범죄신고보상제도 연구*. 한국형 사법무정책연구원.
- 조성학, 이종섭, 장민환, 이정원 (2022). 경찰 수사 과정에서 CCTV 활용 범인식별절차의 암시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21(3), 203-226.
- 주미정, 이재식 (2012). 문화성향과 분석적-종합적 사고유형의 조합에 따른 전역/국소처리에서의 차이. *인지과학*, 23(2), 269-293.
- 최숙희 (2009). *심리통계학의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 통계청 (2024).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15lsKvMK6B0kPxYlk8DOziw0.node1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6346#none
- 표창원 (2007).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장치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경찰연구*, 6(3), 59-90.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3). *국민생활안전실태 조사*.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2&idxCd=4264>
- Anakwah, N., Horselenberg, R., Hope, L., Amankwah - Poku, M., & Van Koppen, P. J. (2020). Cross cultural differences in eyewitness memory repor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34(2), 504-515.
- Albright, T. D., & Rakoff, J. S. (2020). The impact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 report on eyewitness identification. *Judicature*, 104(1), 21-29.
- Bryant, P., & Dunford, R. (2008). The influence of regulatory focus on risky decision making.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7(2), 335-359.
- Burt, H. E. (1948). Educational significance of differences in intelligence. In H. E. Burt, *Applied psychology* (pp. 64-85). Prentice-Hall.
- Cheon, J. E., Nam, Y., Kim, K. J., Lee, H. I., Park, H. G., & Kim, Y. H. (2021). Cultural variability in the attribute framing effect. *Frontiers in Psychology*, 12, 1-11.
- Chen-Xia, X. J., Betancor, V., Rodríguez-Gómez, L., & Rodríguez-Pérez, A. (2023). Cultural variations in perceptions and reactions to social norm transgressions: A comparative study. *Frontiers in Psychology*, 14, 1-9.
- Choi, K., & Lee, J. L. (2021). *Citizen participation in community safety: A comparative study of community policing in South Korea and the UK*. In *The Rise of Comparative Policing*. Routledge.
- Crowe, E., & Higgins, E. T. (1997). Regulatory focus and strategic inclinations: Promotion and prevention in decision m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9, 117-132.
- Cutler, B. L., & Penrod, S. D. (1995). *Mistaken identification: The eyewitness, psychology and the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es, G., & Griffiths, L. (2008). Eyewitness identification and the English courts: A century of trial and error*.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5(3), 435-449.
- Den Hartog, D. N., & De Hoogh, A. H. B. (2024). Cross-cultural leadership: What we know, what we need to know, and where we need to go. *Annual Review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11, 535-566.
- Demir, M. (2018). The perceived effect of a witness security program on willingness to testify.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review*, 28(1), 62-81.
- Devlin, L. P. (1976). *Report to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of the departmental committee on evidence of identification in criminal cases*. HMSO.
- Diefenbach, U., Schnellbacher, B., & Heidenreich, S. (2020). Using regulatory fit in cost reduction announcements. *Journal of Accounting & Organizational Change*, 17(2), 217-241.
- Douglas, A. B., & Smalarz, L. (2019). Post-identification feedback to eyewitnesses: Implications for system variable reform. *Advances in Psychology and Law*, 4, 101-135.
- Dragović, S. P. (2019). Witness protection program in Bosnia and Herzegovina. *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Novi Sad*, 53(2), 691-698.
- Fairclough, S. (2023). Resilience-building in adversarial trials: Witnesses, special measures and the principle of orality. *Social & Legal Studies*, 33(4), 642-667.
- Fleetwood, J., & Lea, J. (2022). Defunding the police in the UK: Critical questions and practical suggestions. *The Howard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61, 167-184.
- Gerfen, C. R., Economo, M. N., & Chandrashekar, J. (2018). Long distance projections of cortical

- pyramidal neurons. *Journal of Neuroscience Research*, 96(9), 1467-1475.
- Ginet, M., & Py, J. (2001). A technique for enhancing memory in eye witness testimonies for use by police officers and judicial officials: The cognitive interview. *Le Travail Humain*, 64(2), 173-191.
- Glomb Kaja., Piotrowski Przemyslaw., Gulla Bożena., Romanowska Iza., & Mastek Maria. (2024). How emotions shape memory? The moderating effect of healthy emotionality on eyewitness testimony. *Frontiers in Psychology*, 15, 1-11.
- Gorodnichenko, Y., Roland, G. (2012). Understanding the individualism-collectivism cleavage and its effects: Lessons from cultural psychology. In: Aoki, M., Kuran, T., Roland, G. (eds) *Institutions and Comparative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Series. Palgrave Macmillan.
- Gronlund, S. D. (2005). Sequential lineup advantage: Contributions of distinctiveness and recollection.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9(1), 23-37.
- Genea. S. (2020). Media exposure to crime, fear of crime,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Walden Dissertations and Doctoral Studies.
- Haidt, J. (2003). Elevation and the positive psychology of morality. *Flourishing: Positive psychology and the life well-liv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mstra, M. R., Bolderdijk, J. W., & Veldstra, J. L. (2011). Everyday risk taking as a function of regulatory focu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1), 134-137.
- Higgins, E. T.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 1280-1300.
- Higgins, E. T. (1998). Promotion and prevention: Regulatory focus as a motivational principl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1-46.
- Higgins, E. T. (2000). Making a good decision. *American Psychologist*, 55, 1217-1230.
- Higgins, E. T., Friedman, R. S., Harlow, R. E., Idson, L. C., Ayduk, O. N., & Taylor, A. (2001). Achievement orientations from subjective histories of success: Promotion pride versus prevention prid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1), 3-23.
- Higgins, E. T. (2002). How self-regulation creates distinct values: The case of promotion and prevention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2(3), 177-191.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McGraw-Hill.
- Hofstede, G., Hofstede, G. J., Minkov, M.(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3rd ed. McGrawHill.
- Hope, L., Anakwah, N., Antfolk, J., Brubacher, S. P., Flowe, H., Gabbert, F., Giebels, E., Kanja, W., Korkman, J., Kyo, A., Naka, M., Otgaar, H., Powell, M. B., Selim, H., Skrifvars, J., Sorkpah, I. K., Sowatey, E. A., Steele, L. C., Steverns, L., & Wells, S. (2022). Urgent issues and prospects at the intersection of culture, memory, and witness interviews: Exploring the challenges for research and practice.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27(1), 1-31.
- Hutton, P. H. (2013). Memory: witness,

- experience, collective meaning. In N. Partner, S. Foot (Eds.) *Memory: Witness, experience, collective meaning* (pp. 354-377). SAGE.
- Idson, L. C., Liberman, N., & Higgins, E. T. (2000). Distinguishing gains from nonlosses and losses from nongains: A regulatory focus perspective on hedonic intens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6*(3), 252-274.
- Kaesler, M., Dunn, J. C., Ransom, K., & Semmler, C. (2020). Do sequential lineups impair underlying discriminability? *Cognitive Research: Principles and Implications, 5*(1), 1-21.
- Kagitçibasi, Ç. (1997).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W. Berry, M. H. Segall, & Ç. Kagitç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pp. 1-49). Boston: Allyn & Bacon.
- Kassin, S. M., & Gudjonsson, G. H. (2004). The psychology of confess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ssu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2), 33-67.
- Kastanakis, M. N., & Voyer, B. G. (2014). The effect of culture on perception and cognition: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7*(4), 425-433.
- Keeter, S., Dimock, M., & Christian, L. (2008). What's wrong with this poll? Estimating the impact of mode effects and coverage bias on survey estimates. *Public Opinion Quarterly, 72*(4), 819-843.
- Kontorovich, Eugene & Friedman, Ezra (2011). An economic analysis of fact witness payment. *Journal of Legal Analysis, 3*, 139-164.
- Kovera, M. B., & Evelo, A. J. (2021). Eyewitness identification in its social context.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Memory and Cognition, 10*, 313-327.
- Larson, G. (2023). Comparing response outcomes for simultaneous and sequential lineup procedure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yracuse}.
- Laughery, K. R., Alexander, J. F., & Lane, A. B. (1971). Recognition of human faces: Effects of target exposure time, target position, pose position, and type of photograp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5*(5), 477-483.
- Lee, J., & Saraiva, R. B. (2025). Cross cultural research in eyewitness identification: Exploring criterion differences between South Korean and UK eyewitnesses in lineup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39*(2). 1-29.
- Liberal Democrats. (2023.5.23). Shock poll finds Brits turning to DIY security and dogs amid fear of crime. <https://www.libdems.org.uk/press/release/shock-poll-finds-brits-turning-to-diy-security-and-dogs-a-mid-fear-of-crime>
- Lind, E. A., & Tyler, T. R. (1988). *The social psychology of procedural justice*. Plenum Press.
- Lindsay, R. C. L., & Wells, G. L. (1985). Improving eyewitness identification from lineups: Simultaneous versus sequential lineup present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0*, 556-564.
- Lomas, T., Diego-Rosell, P., Shiba, K., Standridge, P., Lee, M. T., Case, B., Lai, A. Y., & VanderWeele, T. J. (2022). Complexifying individualism versus collectivism and West versus East: Exploring global diversity in perspectives on self and other in the gallup world poll.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 54(1), 61-89.
- Marr, C., Otgaar, H., Sauerland, M., Quaedflieg, C. W. E. M., & Hope, L. (2021). The effects of stress on eyewitness memory: A survey of memory experts and laypeople. *Memory & Cognition, 49*(3), 401-421.
- Marris, C., Langford, I. H., & O'Riordan, T. (1998). A quantitative test of the cultural theory of risk perceptions: Comparisons with the psychometric paradigm. *Risk Analysis, 18*(5), 635-648.
- Metson, J., & Willmott, D. (2024). Victim Care or Defendant Rights? Assessing Public Attitudes towards Special Measures Designed to Support Vulnerable Witnesses at Trial. *Social Sciences, 13*(4), 1-27.
- Monaco, J. (2020). Ecological fallacy. In: Gellman, M.D. (Eds), *Encyclopedia of behavioral medicine*. Springer, Cham.
- Muramoto, Y., Yamaguchi, S., & Kim, U. (2009). Perception of achievement attribution in individual and group contexts: Comparative analysis of Japanese, Korean, and Asian American result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3), 199-210.
- Na, C. M., Lee, S. K., & Kang, I. K. (2023). Police effectiveness and procedural justice as competing public values: Moving beyond the instrumental-versus-normative model of police legitimacy. *Policing: A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17*(1), 1-20.
- OECD. (2024). OECD 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2024 results - Country notes: Korea. *OECD*.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survey-on-drivers-of-trust-in-public-institutions-2024-results-country-notes_a8004759-en/korea_ab1a95c7-en.html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4). Population estimates for England and Wales: mid-2023.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opulationandmigration/populationestimates/bulletins/populationestimatesforenglandandwales/mid2023>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5). Crime in England and Wales: year ending December 2024.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crimeandjustice/bulletins/crimeinenglandandwales/yearendingdecember2024>
- Pajón, L., & Walsh, D. (2017). Examining the effects of violence and personality on eyewitness memory.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24*(6), 923-935.
- Pierce, J. L., Gardner, D. G., Dunham, R. B., & Cummings, L. L. (1993). Moderation by organization-based self-esteem of role condition employee response relationship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6*(2), 271-288.
- Pike, G., Havard, C., Harrison, G., & Ness, H. (2021). Eyewitness identification procedures: Do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share the same goals?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cience & Management, 23*(1), 17-28.
- Price, H. L., Harvey, M. B., Anderson, S. F., Chadwick, L., & Fitzgerald, R. J. (2018). Evidence for the belief in live lineup superiority.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34*, 263-269.

- Robinson, E, Schofield, C, Sutcliffe-Braithwaite, F, & Thomlinson, N. (2017). Telling stories about post-war Britain: Popular individualism and the 'Crisis' of the 1970s, *Twentieth Century British History*, 28(2), 268-304.
- Rodrigues, D. L., Lopes, D., & Balzarini, R. N. (2022). Having a prevention regulatory focus longitudinally predicted distress and health-protective behaviou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tress and health,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Investigation of Stress*, 38(4), 767-775.
- Rose, N., Hur, T., & Pennington, G. (1999). Counterfactual thinking and regulatory focus: Implication for action versus necess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1109-1120.
- Selner-O'Hagan, M. B., Kindlon, D. J., Buka, S. L., Raudenbush, S. W., & Earls, F. J. (1998). Assessing exposure to violence in urban yout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Allied Disciplines*, 39(2), 215-224.
- Srishti Malik. (2023). Psychological effects of witnessing a crime and exposure to various types of viol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Engineering and Science*, 11(4), 48-53.
- Stebly, N., Dysart, J., Fulero, S., & Lindsay, R. C. (2001). Eyewitness accuracy rates in sequential and simultaneous lineup presentations: A meta-analytic comparison. *Law and Human Behavior*, 25(5), 459-473.
- Sunshine, J., & Tyler, T. R. (2003). The role of procedural justice and legitimacy in shaping public support for policing. *Law & Society Review*, 37(3), 513-548.
- Wanous, J. P., Reichers, A. E., & Hudy, M. J. (1997). Overall job satisfaction: How good are single-item measur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2), 247-252.
- Weber, E. U., & Hsee, C. (1998).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risk perception, but cross-cultural similarities in attitudes towards perceived risk. *Management Science*, 44(9), 1205-1217.
- Wixted, J. T., Mickes, L., Dunn, J. C., Clark, S. E., & Wells, W. (2016). Estimating the reliability of eyewitness identifications from police lineup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3(2), 304-309.
- Xiong, Moulin, Greenleaf, Richard, Goldschmidt & Jona. (2017). Citizen attitudes toward errors in criminal justice: Implications of the declining acceptance of Blackstone's ratio,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48, 14-26.
- Yang, J. (2015). The influence of culture on Koreans' risk perception. *Journal of Risk Research*, 18(1), 69-92.
- Yehonatan G. (2019). Preferences for Criminal Justice Error Types: Theory and Evidence.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48(2), 307-339.
- Zeelenberg, M., Nelissen, R. M. A., Breugelmans, S. M., & Pieters, R. (2008). On emotion specificity in decision making: Why feeling is for doing.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3(1), 18-27.
- 논문 투고일 : 2025. 07. 01
1 차 심사일 : 2025. 08. 05
게재 확정일 : 2025. 08. 26

Differences in Error Preference in Eyewitness Identification Process between Koreans and Britons: the moderating role of prevention focus tendency

Danhee Kim Huijin Park Sangyeon Yo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yewitness identification is a critical stage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for suspect determination; however, errors in this process can infringe upon individual rights and undermine the realization of justice. Soci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are increasingly recognized as key factors shaping eyewitness judgment. Understanding whether individuals in different countries are more inclined to tolerate or avoid certain types of errors provides important insights for institutional design. This study examines behavioral tendencies in eyewitness identification among Korean and British participants, focusing on preferences between Type I errors—higher likelihood of identifying the perpetrator but also higher risk of misidentifying innocent citizens—and Type II errors—lower likelihood of identifying the perpetrator but reduced risk of misidentification. A total of 600 participants (300 Koreans, 300 Britons) were recruited through a professional survey company. Participants were asked to choose between the simultaneous lineup method (higher accuracy but greater error potential) and the sequential lineup method (lower accuracy but reduced error potential) under conditions of uncertainty regarding the perpetrator's presence. Regulatory focus was also measured using a 5-point Likert scal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main effects of nationality and moderation effects of prevention focus. Koreans tended to prefer Type II errors, whereas Britons favored Type I errors, and these tendencies were strengthened among participants with higher prevention focu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play a decisive role in shaping risk perceptions in eyewitness identification. Koreans viewed the wrongful accusation of innocent citizens as a greater risk, favoring cautious judgments consistent with Type II errors. In contrast, Britons regarded failing to identify the perpetrator as a failure of justice, favoring more proactive identification aligned with Type I errors. Such difference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soci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into the design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policy-making across nations.

Key words : eyewitness identification, error preference, socio-institutional factors differences, prevention focus, promotion focus